

사행산업 경험자의 공공여가시설 인지도가 여가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여가정책 중요도와 민간여가시설의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이윤영¹

¹서울디지털대학교

Effects of public leisure facilities awareness on leisure policy satisfaction of experienced people in gambling industry: Verification on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leisure policy important and private leisure facilities awareness

Lee, Younyoung¹

¹Seoul Digit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public leisure facilities awareness on leisure policy satisfaction of experienced people in participating in gambling industry as leisure activities.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research by using survey on national leisure activity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2016. The national leisure activity survey was composed of 85 leisure items were divided into 8 categories and this study extracted samples of participating in gambling industry. Process Macro 3.3 was used to analyze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s of private leisure facilities awareness on leisure policy importance and satisfac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public leisure facilities awarenes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government leisure policy satisfaction, which meant that more leisure facilities awareness increased the leisure policy satisfaction. Secondly,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level of leisure policy importance, the more the leisure policy satisfaction. Thirdly, the higher public leisure facilities awarenes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level of leisure policy importance. Lastly,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level of leisure policy importance can be a not moderating but mediating factor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facilities awareness and government leisure policy satisfaction. Also moderated mediation happened because the mediating effect of leisure policy importance between public leisure facilities awareness and leisure policy satisfaction was moderated by private leisure facilities awareness. In summary, this study was meaningful in that it showed that leisure policy awareness of gambling industry participants were an important variable affec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leisure facilities awareness and leisure policy satisfaction.

Key words : gambling industry, sport gambling, leisure facilities, leisure policy, leisure satisfaction

주요어 : 사행산업, 스포츠도박, 여가시설, 여가정책, 여가만족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Younyoung

Seoul Digital University, Gonghang-daero, Gangseo-gu, Seoul, Korea

Tel: +82-02-2128-3042, Fax:+82-02-2128-3006, E-mail: youngcnn@naver.com

Received: April, 30, 2019 Revised: May, 31, 2019 Accepted: June, 22, 201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는 여가의 사회라고 할 만큼 현대사회에서 여가의 확산은 삶의 내용과 질에 일대 변혁을 가져왔다. 여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행복지수와 가치판단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력 향상, 나아가 국가경쟁력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한수정, 조용준, 2010: 215). 따라서 여가 활용의 문제는 사회적 발전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가활용을 규정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의 하나가 사행산업이다. 사행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속하며 여가의 확대와 함께 팽창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경마, 경륜, 경정 등 스포츠도박을 포함한 7대 합법사행산업의 매출액이 지난 98년 3.6조원에서 2016년 22조 원으로 6.1배가 증가하며 연평균 성장률이 6.3%에 이르렀다. 문제는 사행산업 증대에 따른 도박중독, 범죄, 자살 등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나는 데 있다(연합뉴스, 2017.12.14.). 구체적으로 사행산업 규모를 살펴보면, 경마가 전체 매출액의 35.2% 수준이며 그다음 체육진흥투표권이 20.2%로 나타나 스포츠 사행산업이 55.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때 스포츠 사행산업이란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임/사건 또는 어떤 유형의 내기에 가치를 두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Bolen & Boyd, 1968). 스포츠 사행산업은 스포츠복권부터 경마, 경륜, 경정 등 스포츠 게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스포츠 사행산업이 사행산업의 가장 심각하고 핵심적인 역기능은 중독자의 발생과 연관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이민규, 김교현, 성한기, 권선중, 2009: 13). 특히 경주 스포츠에서 경륜은 싸이클 경주로, 경정은 모터보트 경주로서 운

영되고 있는 합법적 도박성 게임 중의 하나로 이런 합법적인 사행산업이 레저산업으로 주목을 받기도 하지만 병적중독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김경훈, 배정규, 2007: 367-368; 오세연, 2013: 22 재인용).

하지만 스포츠 사행산업은 국민의 여가선용 및 레저 참여기회의 확대로 꾸준히 확장되어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여가 확장의 시대에서 스포츠 사행산업의 긍정적 기능을 향상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스포츠도박을 예로 들어보면, 스포츠도박은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환급금을 받는 스포츠 사행산업의 일종이지만 스포츠 관람과 함께 경기 분석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쾌감을 제공하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게 하고 스포츠에 관한 관심 증진을 통해 스포츠 환경의 발전에 기여한다(박세진, 2008; 김나혜, 박성언, 전정우, 2015: 96)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이처럼 사행산업의 긍정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행산업 경험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올바른 여가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그런데 사행산업이 여가 활용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행산업 경험자의 여가에 대한 인식을 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사실상 미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차재빈, 2018: 210).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사행산업과 여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심리적 안녕감 모형에 근거하여 사행산업과 여가를 설명한 Diener, Lucas 및 Oishi(2002)의 연구, 성인을 대상으로 경마, 경륜을 포함한 볼링, 골프 내기 등 도박성 스포츠 게임의 경험 정도와 여가 만족도 등 사회적 변인과 관계를 살펴본 이민규 외(2009)의 연구 등을 볼 수 있다. 또한 여가스포츠 도박 경험자에게 여가 지속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여가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여가 몰입(flow) 경험을 목표로 하는 여가활동 참여 집중 프로그램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실제로 여러 연구들(Omodei &

Wearing, 1990; Massimini & Carli, 1988)은 사행산업 경험이 여가활동의 참여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였고(김민규, 박수정, 2015), 사행산업 경험자 본인의 스포츠도박을 비롯한 다양한 여가로의 참여확장과 긍정적인 관리, 경영능력에 대해 살펴보았다(김민규, 박수정, 2017:79). 사행산업과 여가에 관한 이 연구들은 사행산업이 경험자들의 여가욕구를 만족시키는 순기능이 있고(성준모, 김정진, 2014: 138), 스포츠 산업의 정책적 측면에서 여가선용의 한 방법으로써 다뤄져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박종권, 2009). 이처럼 여가정책 관련 선행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대상으로 본다면 대부분 노인, 청소년에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사행산업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여가시설 및 여가정책에 관한 연구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사행산업의 규모가 연간 20조를 초과하면서 도박중독, 자살, 범죄 등이 확산되어 사행산업을 재정립하고 건전한 여가를 정착시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국무조정실, 2017). 특히 여가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사행산업 장외발매소가 의도와는 달리 레저성이 결여되고 오히려 불법 사행성 심화를 초래하게 되자 장외발매소 일부를 폐쇄, 이전 및 축소하는 조치가 취해졌다(국무조정실, 2017). 따라서 사행산업 경험자들의 여가정책과 여가이용시설 등 여가 실태에 대해 파악한다면, 장외발매소와 같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여가를 정립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개인의 자기개발 및 사회참여 강화 등을 추구하는 적극적 여가정책을 통해 제반 사회문제를 해결해온 선진국 사례에 기반해 볼 때 본 연구도 사행산업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형 여가정책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지금까지 살펴본 사행산업과 여가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사행산업 참가 경험을 여가 만족에 대한 독립변인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근본적으로 사행산업 참가자들의 여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사행산업 경험자들의 여가시설에 대한 인식, 여가정책, 만족도 등 전반적인 여가 인식에 대한 관계를 고찰해 볼 것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여가의 활용으로 사행산업을 경험한 연구대상자의 전반적인 여가시설에 대한 인지도, 여가정책 만족도 그리고 여가정책 중요도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여가정책 수립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건전한 여가 확립 및 사행산업의 역기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측면에서 여가시설은 여가정책 및 여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황현석, 2018: 576). 따라서 사행산업 경험자를 대상으로 하여 공공여가시설 및 민간여가시설에 대한 인지도와 여가정책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사행산업 경험자들의 올바르게 건전한 여가 선용 방안을 이끌 수 있는 정책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선행연구 고찰 및 가설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사행산업과 관련된 여가정책 및 여가시설에 관한 선행연구와 관련 이론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연구 모형, 가설을 도출하였다.

1) 여가시설 인지도와 여가정책, 여가만족

여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의 증대로 인해 여가시간의 확대, 여가공간 확충을 위한 노력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때 여가 공간이란 여가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

다(신용석, 2005). 또한 여가시설이란 여가공간 내에서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물리적 자원의 총체로써 이용자의 여가활동을 유도하고 여가 경험을 제공하며 여가활동 주체의 움직임 및 이용특성에 따른 복합적, 다원적, 다변적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김효정, 2013:17).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공공여가시설에 대해 정의하면, 공공여가시설이란 국민 복지를 증진 시키기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가 직접 설치, 관리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 공원 등의 체육 분야 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반면 민간여가시설이란 체육 단체, 사회단체, 종교 단체 또는 개인이 공공여가시설과 유사한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여가시설 등을 의미한다.

여가시설 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일반적인 다수를 연구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차별적으로 진행되어왔다. 하응용, 김예성(2018), 김세진(2017), 최승훈(2017), 홍석호, 김순은(2016) 등은 노인을 대상으로, 이성미(2016)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리고 한수지, 전미자, 김미경, 이민경(2016)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여가 연구를 진행했으며, 최성훈(2018), 김세진(2017)의 경우 특정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여가시설에 대해 연구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여가시설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허중욱(2014)은 여가시설 이용자의 여가활동 참여 정도가 여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고, 김용국, 김선희(2017)는 공공여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공정성이 만족도 및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임윤아(2018)는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여가스포츠 참여와 건강상태 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전원재, 임수원(2018)은 공공스포츠클럽의 이용자들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운영시스템에 대해 고찰한 바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는 건전한 여가 선

용이 사회적 발달 측면에서 필수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여가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가시설의 활용 및 여가시설에 대한 인식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연구 결과는 민간여가시설이나 공공여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뛰어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여가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선행연구에서는 여가정책을 고려하면서도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으로 구분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용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계된 공공여가시설과 개인의 변화하는 트렌드에 따라 맞춤형된 민간여가시설의 차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볼 수 있다(황현석,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가시설을 공공여가시설과 민간여가시설로 구분하여 이러한 여가시설에 대한 인식이 여가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다음으로 여가정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고찰해보았다. 사실 여가정책이란 용어는 일반사회에서만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생소한 용어였으며 연구나 논의가 미흡하였다. 그러나 여가 활용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여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여가정책은 비중 있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노용구, 2007: 223). 여가정책은 일반적으로 여가에 대한 공적인 계획, 조직, 집행을 말하는 것으로 그 실행 목적은 국민의 생활만족을 향상하는 방향에서 여가 참여를 유도하고 장려하는 정책을 말하는데 이에 따라 본 연구에는 여가정책이란 정부가 복지사회를 구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 차원에서 결정하고 수행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한수정, 조용준, 2010: 218).

여가정책에 관해서는 제도적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여가 진흥 관련 법 제정에 관한 논의(김정운, 최석호, 윤소영, 김영선, 2006)와 여가 산업 정책의 방향과 사회적 가치 전환(박재우, 임승업,

2014), 여가활동 변화에 따른 여가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한수정, 조용준, 2010), 여가 산업 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박세혁(2007)의 연구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전반적인 삶의 질 차원에서 여가정책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차재빈(2018: 211)은 여가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한다면 우리나라가 여가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적인 여가전략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고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즉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여가정책의 현실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함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가정책에 대한 평가적 연구가 미비했다고 보며 본 연구에서는 여가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해서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모형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및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변인간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 먼저 공공여가시설 인지도가 여가정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공공여가시설 인지도와 여가정책만족도를 매개하는 여가정책중요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공공여가시설 인지도와 여가정책 중요도 사이에서 민간여가시설 인지도와 공공여가시설 인지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

였다. 마지막으로 여가정책중요도와 민간여가시설 인지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공공여가시설 인지도와 여가정책만족도 사이에서 여가정책 중요도가 민간여가시설 인지도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공공여가시설 인지도는 여가정책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여가정책 중요도는 공공여가시설 인지도와 여가정책 만족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3. 민간여가시설 인지도는 공공여가시설 인지도와 여가정책중요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4. 민간여가시설 인지도는 공공여가시설 인지도, 여가정책 중요도 그리고 여가정책 만족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사행산업 경험자란 경마, 경륜, 카지노, 카드놀이, 복권구입의 경험이 있는 사행 행위를 여가활동으로 경험한 바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사행산업 경험자의 여가시설과 여가정책 만족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2016년 조사한 국민여가활동조사 원데이터(raw data)를 분석하였다. 2016년 국민여가활동 조사의 실사 기간은 2016년 9월1일부터 10월 28일까지이며 15세 이상 총 10,602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수행되었다. 조사방법은 전문 조사원이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를 방문하여 설문지에 응답 내용을 기재하는 가구방문 면접조사로 실시되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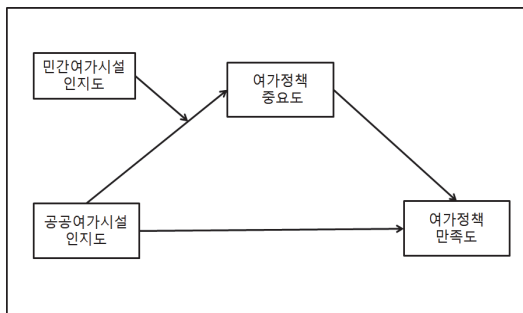


그림1. 여가시설 인지도가 정부여가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여가정책 중요도인식의 매개효과 분석

국민여가활동 조사에서는 여가 활동 참여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가 항목을 총 8개 카테고리 아래 85개 세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취미, 오락 활동 중 경마, 경륜, 카지노, 카드놀이, 고스톱, 마작 등의 사행산업 참여 활동 경험이 있는 152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2차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연구 대상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		n	%
성별	남성	60	39.5
	여성	92	60.5
배우자 여부	유 배우자	38	25.0
	기타(미혼, 사별, 이혼)	114	75.0
연령	20대 이하	2	1.3
	30대	6	3.9
	40대	11	7.2
	50대	22	14.5
	60대 이상	111	73.0
학력 수준	중학교 졸업	102	67.1
	고등학교 졸업	30	19.7
	4년제 미만 대학교 졸업	15	9.9
	4년제 이상 대학교 졸업 이상	5	3.3
소득 수준 (월 평균)	소득 없음	58	38.2
	100만원 미만	42	27.6
	100-200만원 미만	20	13.2
	200-300만원 미만	8	5.3
	300-400만원 미만	14	9.2
	400-500만원 미만	7	4.6
경제활동 여부	500만원 이상	3	2.0
	경제활동 중	67	44.1
	경제활동 하지 않음	85	55.9

즉 연구대상자는 85개의 여가활동 가운데 지난 1년 동안(2015년 8월 1일~2016년 7월 31일) 경마, 경륜, 카지노, 카드놀이, 고스톱, 마작 등 사행산업을 한 번 이상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표 1>을 통해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60대가 73.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대 이하가 1.3%로 가장 적었다. 반면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55.9%이며, 소득이 없다

고 응답한 비율도 38.25%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여가활동 조사 데이터의 경우 남성이 48.8%, 여성이 51.2%로 성별분포가 비교적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사행산업 유경험자의 경우 여성이 60.5%로 남성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조사 대상자의 학력 수준을 살펴본 결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86.8%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연구대상자의 행복지수를 10점 척도(1점 매우 불행, 10점 매우 행복)로 측정해본 결과 평균 6.89(표준편차 1.529)로 비교적 행복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여가시설 인지도 및 여가정책 만족도와 여가정책 중요도는 국민여가활동 조사에서 매년 수행해온 신뢰성있는 척도에 따라(문화체육관광부, 2016) 측정되었다. 여가시설 인지도, 여가정책 만족도 및 여가정책 중요도의 척도는 국민여가활동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의 전문가들이 2년마다 진행해 오던 국민여가활동 실태를 바탕으로 새롭게 설계하였다. 특히 신뢰성과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진이 구성한 1차 척도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수정, 보완하여 완성하였다. 최종적으로 이 자료는 국가승인통계로 인정받아(승인번호 제 11314호) 공신력 있는 여가활동 관련 통계조사로 인정받았다.

먼저 공공여가시설은 “생활권 내의 공공문화 및 여가시설은 이용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등 네 문항(alpha=.913)으로 측정되었다. 반면 조절변인인 민간여가시설 인지도는 “현재 우리나라의 호텔, 테마마크 공원, 스포츠 시설 등 여가 관련 공간사업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등 세 문항(alpha=.908)이 사용되었다. 공공여가시설 인지도와 민간여가시설 인지도의 경우 1번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7번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7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때 공공여가시설 인지도 변인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평균 점수는 17.20(SE=4.557)으로 국민여가활동조사 전체 대상자의 평균 18.39(SE=4.30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정부 여가정책의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여가정책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여가시설,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여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배치 등을 비롯한 7개 문항을 분석하였다. 만족도 관련 7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실시한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 값은 .953으로 나왔다. 정부정책 만족도에 관한 응답척도는 독립변인과 마찬가지로 1점 “매우 불만족한다”에서 7점 “매우 만족한다”의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여가정책만족도 변인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평균 점수는 32.3(SE=6.619)으로 국민여가활동조사 전체 대상자의 평균 34.0942(SE=6.3273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매개변인은 종속변인과 마찬가지로 여가시설, 여가프로그램, 여가 관련 인력, 동호회 육성, 법 제도 등 7개 문항을 사용하여 중요도 평가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에서 “매우 중요하다”에 이르는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여가정책 중요도 변인에 관한 요인분석 실시 결과 <표 2>와 같이 7개 문항은 1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alpha=.937).

표 2. 각 변인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공통성	요인
생활권 내 어떠한 공공문화 및 여가시설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720	.849
생활권 내 공공 문화 및 여가시설을 이용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78	.882
여가 생활권 내 공공 문화 및 여가시설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제공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813	.902
생활권 내의 공공문화 및 여가시설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871	.933
Eigenvalue % of Variance	3.182	
Cumulative %	79.560	
현재 여가관련 산업에 대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824	.908
여가 시설 현재 우리나라의 여가 관련 용품산업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862	.928
인지도 현재 우리나라의 여가 관련 서비스산업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856	.925
Eigenvalue % of Variance	2.541	
Cumulative %	84.713	
다양한 여가시설	.779	.882
질 좋은 여가프로그램 개발, 보급	.730	.854
여가관련 전문인력 양성, 배치	.830	.911
여가관련 동호회 육성, 지원	.749	.865
소외계층을 위한 여가생활 지원	.737	.858
보다 나은 여가생활을 위한 법규,제도 개선	.816	.903
공휴일과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	.823	.907
Eigenvalue % of Variance	5.462	
Cumulative %	78.032	
다양한 여가시설	.678	.823
질 좋은 여가프로그램 개발, 보급	.716	.846
여가관련 전문인력 양성, 배치	.771	.878
여가관련 동호회 육성, 지원	.668	.817
소외계층을 위한 여가생활 지원	.742	.861
보다 나은 여가생활을 위한 법규, 제도 개선	.753	.868
공휴일과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	.757	.870
Eigenvalue % of Variance	5.084	
Cumulative %	72.636	

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여가로서 경륜, 경마 등 사행산업을 경험한 연구 대상으로 하여, 공공여가시설 인지도와 여가정책 만족도의 관계에서 여가정책 중요도의 매개효과와 민간여가시설 인지도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추출된 데이터를 SPSS 버전21.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빈도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요인분석은 요인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요인구조가 가장 선명해질 때까지 요인을 회전시키는 직각요인회전 방식 중 하나인 베리맥스(varimax)를 적용하였고 요인추출은 요인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고유치(eigen value) 1을 기준으로 하였다. 베리맥스는 요인행렬의 열의 분산의 합계를 최대화함으로써 열을 단순화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

되는 요인분석 방법 중의 하나이다(이학식, 2008:346). 다음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SPSS Process Macro 3.3 프로그램을 통해 3단계의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Process Macro는 조절된 매개모형과 같이 복잡한 모형을 분석하는 통계방법으로 Hayes(2018)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은 조건부과정분석이라고 하며, 매개모형과 조절모형을 결합한 복합적인 모형을 분석하는 것이다(이형권, 2016; 홍명기, 장현석, 2018). Process Macro에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다양한 모형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Model 1, 4, 7의 효과분석 과정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단계에서 공공여가시설 인지도가 여가정책 중요도를 거쳐 여가시설 만족도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때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Process Macro가 제시하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공공여가시설 인지도가 여가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민간여가시설 만족도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관한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조절효과는 공공여가시설 인지도와 민간여가시설 인지도의 상호작용항의 영향력의 차이를 통해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여가시설 인지도가 여가정책 중요도를 경유하여 여가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민간여가시설 인지도에 의해 조절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조절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역시 Process Macro가 제시하는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이루어졌다.

III. 결과

1.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 적용된 변인간의 상관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표 3>과 같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러 학자마다 의견 차이가 있

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관계수는 절대값이 .80을 넘는 경우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강화·배은경, 2018: 148-149 재인용). 따라서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독립변인, 종속변인, 매개 및 조절변인 등 각 개별 변수간의 상관이 .80 이상을 넘지 않으므로 상관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발생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3>에 따르면 공공여가시설 인지도, 민간여가시설 인지도 변인은 여가정책 만족도, 여가정책 중요도 변인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공공여가시설 인지도와 민간여가시설 인지도 수준이 높아 질수록 여가정책 만족도 및 여가정책 중요도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각 변인의 상관관계 분석

	(1)	(2)	(3)	(4)
공공여가시설 인지도(1)	1	.560***	.598***	.562***
민간여가시설 인지도(2)		1	.633***	.697***
여가정책 만족도(3)			1	.628***
여가정책 중요도(4)				1

*** $p < .001$

2. 여가정책 중요도의 매개효과 검증

공공여가시설 인지도가 여가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여가정책 중요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뉘었다. 첫 번째는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인과관계전략인데 이 방법은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배병렬, 2018). 이런면에서 Baron과 Kenny는 두 번째 방법인 Sobel Test를 권유하였는데 Sobel Test는 표본분포가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가정하에 검정을 하게되는데 이로 인해 낮은 검증력을 보여왔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부트스트래핑 방법이다(이형권, 송성섭, 2011). 다시말해

Baron과 Kenny의 검증법은 실제 매개효과를 직접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3단계 인과추론을 통해 매개효과를 논리적으로 예측한다는 면에서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으며 매개효과 크기를 직접 산출하는 Sobel Test는 유의성 검증 시 표본분포의 정규성 가정을 전제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매개효과가 대체로 정규분포보다는 편중분포를 보인다고 지적한다는 점에서 단점이 있다는 것이다(강수돌,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 방법을 시도하였다. 이 방법은 통계 패키지인 SPSS, SAS, AMOS 등을 사용하여 실시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Hayes의 SPSS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부트스트래핑 방법에 의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Hayes(2018)가 제시한 Process Macro 기법은 기존의 매개효과 검증법인 Baron & Kenny의 3단계법이나 Sobel Test가 가졌던 결함을 넘어갈 수 있는 새 검증법(강수돌, 2018)이라는 점에서 적합한 분석기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공여가시설 인지도와 여가정책 중요도의 관계에 있어서 여가정책 인지도의 매개효과에 관한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으며 이때 부트스트래핑의 재표본수는 5,000개이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5%의 신뢰수준에서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하한값: .1937~ 상한값: .5196)에 0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유의도 검증은, 하한값과 상한값의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한다(홍명기, 장현식, 2018). 분석결과에 따라 결론적으로 공공여가시설 인지도는 여가정책 중요도를 거쳐 여가정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2'

표 4. 매개효과 분석

방법	계수	SE	신뢰구간 95%	
			하한선	상한선
bootstrapping	.3483	.0833	.1937	.5196

는 지지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민간여가시설 인지도의 조절효과 검증

다음으로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공공여가시설 인지도가 여가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민간여가시설 인지도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표 5. 조절효과 분석

조절변수	ΔR^2	F값	df1	df2	P값
공공여가시설인지도× 민간여가시설인지도	.0001	.0399	1.000	148.0	.8420

분석 결과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공공여가시설 인지도와 민간여가시설 인지도 상호작용항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β 값 = -.0109, p = .842). 이러한 결과는 즉 공공여가시설 인지도가 여가정책 중요도에 미치는 영향이 민간여가시설 인지도에 의해 중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간여가시설 인지도는 공공여가시설 인지도와 여가정책중요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3'은 기각되었다.

3. 민간여가시설 인지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본격적으로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앞서 본 연구는 단순매개효과와 단순조절효과를 각각 별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여가정책 중요도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민간여가시설 인지도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공공여가시설 인지도가 여가정책 중요도를 경유하여 여가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과정에서 민간여가시설 인지도의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표 6>을 통해 살펴보면, 공공여가정책 인지도와 민간여가시설 인지도의 상호작용항은

매개변수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677, p<.001$)

표 6.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

	β	SE	T값	P값
매개변수 모형(종속변수: 여가정책 중요도)				
공공여가시설 인지도	.8168	.1252	6.5238***	.000
민간여가시설 인지도	.7123	.1950	3.6517**	.004
공공여가시설 인지도 x 민간여가시설 인지도	-.1677	.0363	-4.6260***	.000
상수	38.8681	.5426	71.6329	.000
$R^2=.4700, F(3, 148)=43.7463, p<.001$				
종속변수 모형(종속변수: 여가정책 만족도)				
여가정책 중요도	.5198	.1036	8.685	.000
공공여가시설 인지도	.3463	.0579	5.9838	.000
상수	12.27590	2.2192	8.6855	.000
$R^2=.6941, F(2, 149)=62.2771, p<.001$				

*** $p<.001, **p<.01$

구체적으로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표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절된 매개지수 -.0581은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로써 민간여가시설 인지도는 공공여가시설 인지도, 여가정책 중요도 그리고 여가정책 만족도의 매개관계를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4는 지지되었다. 이때 조절된 매개지수 값의 부호가 부적(-)인 것은 조절변수 값이 커질수록 매개효과가 작아짐을 의미한다(배병렬, 2018). 따라서 조절변수인 민간여가시설 인지도의 값이 커짐에 따라 공공여가정책 중요도의 매개효과가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공공여가시설 인지도 역시 여가정책 중요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beta=.5198, p<.001$)으로 나타나 가설1이 지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매개변수	지수	SE	하한값	상한값
여가정책 만족도	-.0581	.0188	-.1027	-.0262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음으로 조절변수에 따른 조건부간접효과를 살펴보았다. 조절변수의 수준이 낮은 경우와 중간인 경우에는 95%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조절변수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95%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여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조절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민간여가시설 인지도	Coef.	SE	하한값	상한값
여가정책 -1SD		.4735	.1198	.2612	.7236
중요도 Mean		.2702	.0715	.1380	.4166
(매개변수) +1SD		.0948	.0701	-.0586	.2204

이러한 결과는 민간여가시설 인지도 수준이 낮을수록 매개효과가 크고(coef= .4735), 민간여가시설 인지도 수준이 높을 경우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coef=.0948)을 보여준다.

IV. 논의

한국사회의 사행산업에 대하여 여가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행산업 경험자의 공공여가시설 인지도가 여가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여가정책 중요도와 민간여가시설 인지도의 관계를 검증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가정책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을 여가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행산업 경험자들의 여가에 관한 인식을 분석하여 공공여가시설에 대한 인지도가 여가정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분석 결과는 공공여가시설 인식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 김용국, 김선희(2017)의 연구를 지지하며, 여가정책과 공공여가시설 및 민간여가시설의 인지도는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 황현석(2018)의 연구, 여가시설 및 위치는 여가 만족도 및 정책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신화경(2016)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유사한 입장에서 이철원(2000)도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사행산업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양질의 국내 여가 인프라 확충을 통해 건전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박철호, 2008:28). 특히 여가정책 만족도의 중요성을 제시할 수 있는데 Griffin & McKenna(1998), Kovas(2007), Beard & Ragheb(1980) 등은 여가스포츠 활동 참가자들을 분석하면서 여가정책의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Tenur, 2013). 이명우, 홍윤미, 윤기웅(2016)도 여가만족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적 처방을 강조했고, 조민구(2015)도 정부의 여가정책은 현 시대의 개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았다. Vong(2004) 역시 마카오의 여가시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여가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정책에 대한 만족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권승주(2004)는 경마 관람자들의 참여정도가 여가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여가 만족도, 정책 등을 강조했으며, Lloyd & Auld(2002)도 여가정책과 여가만족의 관계를 고찰한 후 여가정책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었다. 즉 여가정책의 만족도는 전반적인 삶의 질, 삶의 만족도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사행산업 경험자들이 인식하는 여가정책의 중요도는 공공여가시설 인지도와 여가정책 만족도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가정책의 중요도는 여가시설 서비스 및 질 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가정책은 사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새로운 국

민 행복 정책의 핵심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래의 여가정책은 새로운 개념으로 이해되고 새로운 시각을 바탕으로 전향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가정책의 중요성은 여가 욕구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요 변수라고 할 수 있다(노용구, 2007:224). 또한 여가정책은 국가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서현, 2017; Higgerson et al, 2018). 같은 맥락에서 김선희(2013)도 정부가 제공하는 여가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가시설 이용자들이 지각하는 여가정책 만족도는 개인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기관의 성과 및 지역사회에 대한 심리적 애착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셋째, 공공여가시설 인지도와 여가정책 중요도의 관계에서 민간여가시설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간여가시설 인지도는 공공여가시설 인지도와 여가정책 중요도, 여가정책 만족도 관계에서 조절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민간여가시설 인지도 수준이 높아지면 공공여가시설 인지도가 여가정책 중요도를 경유하여 여가정책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양의 매개효과가 완화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결국 공공 및 민간 여가시설, 여가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의 관계를 밝힌 본 분석 결과는 여가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여가정책의 시행과 여가시설의 확충이라는 한수정, 조용준(2010)의 연구를 지지한다.

큰 이익을 낳는 분야로 인식되는 사행산업은 양날의 칼과 같은 형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는 사행산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도 또는 궁핍하게도 만들 수 있다(이장영, 조옥연:2016). 사행산업은 여가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여가의 일부로서 규정된다. 따라서 사행산업 경험자의 여가에 대한 인식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울

바른 사행산업 관련 여가정책을 수립하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 특히 여가공간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경마, 경정, 경륜 등의 장외발매소 시설 운영이 정책적 실패로 나타나, 장외발매소의 시설 및 환경이 충분한 여가 시설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에 따라 사행산업 관련 여가시설 및 여가정책에 관한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로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행산업 경험자들의 여가 인식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여가정책의 수립 맥락에서 사행산업 경험자를 대상으로 여가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 및 민간 여가시설에 대한 인지도 및 여가정책의 중요성을 설명한 본 논문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

V. 결론

본 연구는 사행산업 경험자들의 여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륜, 경마 등 스포츠 도박 등 사행산업 경험자들의 여가정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해보았다. 구체적으로 공공여가시설에 대한 인식이 여가정책 중요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여가정책 만족도 및 민간여가시설에 대한 인식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해 2016년 국민여가생활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행산업 경험자의 여가정책 만족도 수준에는 공공여가시설 인지도 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공여가시설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정부 여가정책에 대한 만족도 수준도 높아진다.

둘째, 공공여가시설 인지도와 여가정책 만족도 관계에서 여가정책 중요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공공여가시설 인지도와 여가정책 중요도

사이에서 매개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여가시설 인지도와 여가정책 만족도의 관계에서 민간여가시설 인지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공공여가시설 인지도가 여가정책 중요도를 경유하여 여가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과정에서 민간여가시설 인지도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행산업이 여가 서비스 산업의 하위 범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에 대해 여가의 시각에서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사행산업을 경험한 연구대상의 여가 인식을 토대로 정책적 함의점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여가시설 확충 및 여가정책 만족도를 높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심리적 만족을 추구하여 올바른 여가 문화를 이끌고 이를 통해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제언의 기초 연구 제공을 목적으로 시도한 것이다. 특히 여가문화로서 사행산업을 경험한 연구대상자의 경우 공공여가시설 인지도 수준 및 여가정책 만족도 수준이 기타 여가생활 경험자의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행산업 경험자들이 생활권 내 공공여가시설이나 공공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수준이 기타 여가문화 경험자보다 낮으며 또한 정부의 여가생활 지원, 육성 정책에 대한 만족도 수준도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행산업 경험자들의 여가 활용을 위한 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확충 뿐만 아니라 적극적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방안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사행산업 경험자들을 위한 건전하고 건강한 여가 문화의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단기적으로는 올바른 국민여가선용을 이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합법사행산업의 정착 및 중독 등 사행산업의 부

작용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점이 크다고 하겠다.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 등의 범죄행위가 스포츠 사행산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연구와 단속 및 예방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김잔디, 2001: 12-13).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스포츠 도박 등 사행산업 경험자의 여가에 대한 인식을 고찰해보고 이를 통해 여가정책의 개선을 위한 합의점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사행산업 경험자를 표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사행산업 이외 다른 여가 활동에 참여한 표본의 여가 인식과 차이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연구 결과를 사행산업 중독자로 확장시켜 해석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행산업 이외의 여가 활용군을 대상으로 여가 인식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으며, 향후 사행산업 경험자들에게 건전한 여가 생활을 제공할 수 있는 여가시설 확충을 위한 세부적 정책을 제안하는 방향에 초점을 둔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수돌(2018). 개방적 소통이 지식공유 의도에 미치는 영향. *노동정책연구*, 18(1), 1-38.

강화, 배은경(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회지*, 62, 131-163.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4대방안 13대 개선과제 '사행산업 건전화대책' 마련. 2017. 12.14.

권승주(2004). 경마 관람자들의 참여정도가 여가 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15(5), 41-48.

김경훈·배정규(2007). “경륜및 경정 도박성 게임자들의 게임 이용실태, 주관적 삶의질, 자존감 및 사회적지지”. *한국심리학회지*, 12(2), 367-382.

김나혜, 박성언, 전정우(2015). 대학생들의 불법 스포츠도박 지속행동에 대한 탐색. *한국체육학회지*, 54(6), 95-105.

김민규, 박수정(2014). 한국형 여가중독 개념화 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8(1), 1-16.

김민규, 박수정(2015). 청소년 통합여가행위중독의 다차원 개입전략 연구. *여가학연구*, 13(2), 25-47

김민규, 박수정(2017). 한국형 스포츠도박 중독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사회구조적 접근. *교육문화연구*, 23(5), 63-86.

김선희(2013). 공공여가시설의 서비스성도가 지역주민의 지역사회애착 및 향후 여가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7(2), 37-49.

김세진, 강은나(2017). 도시지역 거주 노인의 여가시설 이용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7(3), 110-139.

김용국, 김선희(2017). 공공여가시설의 서비스 공정성이 여가만족도 및 기관 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지*, 15(2), 237-245.

김잔디(2008). 도박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김정은, 최석호, 윤소영, 김영선(2006). 여가진흥법 제정을 위한 연구. *여가학연구*, 4(2), 13-38.

김효정(2013). 생활밀착형 문화, 여가시설 확충, 국토, 8. 15-22.

남궁완, 엄정식(2006). 노인여가시설의 정책적 발전방안. *한국스포츠리서치*, 17(3), 99-108.

노용구(2007). 여가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0, 221-230.

박세진(2008). 스포츠도박 참여가 관람스포츠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미간행

-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세혁(2007). 여가산업의 현황과 과제. **한국여가학회지**, 8(1), 28-59.
- 박재우, 임승엽(2014). 창조경제와 여가산업 정책: 사회적 가치 전환 시대의 논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8(3), 126-140.
- 박종권(2009). 경륜, 경정산업의 발전방안을 위한 경륜, 경정법에 관한 고찰. **스포츠와 법**, 12(2), 121-140.
- 박철호(2008).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 연구. **여행학연구**, 29, 21-48.
- 성준모, 김정진(2014). 사행산업 장외발매소 이용자의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보건사회연구**, 34(3), 135-164.
- 신용석(2005). 공공여가공간의 개념과 특성 및 연구방향. **문화역사지리**, 17(2), 138-147.
- 신화경(2006). 지역사회 여가시설 개발을 위한 공동주택거주자들의 여가활동 장소 및 여가시설에 대한 선호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7(6), 159-158.
- 오세연(2011). 사례분석을 통한 도박중독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 1(1), 23-45.
- 오세연(2013) 경주스포츠 도박중독의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중독범죄학회보**, 3(2), 22-43
- 연합뉴스, “합법사행산업 매출 22조원..국민 100명 중 5명 도박중독”. 2017.12.14.
- 이명우, 홍윤미, 윤기웅(2016). 여가 활동이 국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책논총**, 30(2), 264-287.
- 이민경(2015). 장애인의 사회 및 문화, 여가 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61-73.
- 이민규, 김교현, 성한기, 권선중(2009). 도박성 스포츠 게임이 지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4), 911-927.
- 이성미(2016). 국내청소년의 여가시설 요구도에 관한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4(4), 83-92.
- 이장영, 조옥연(2016). 우리나라 스포츠 베팅산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77-88.
- 이철원(2003). **여가의 재해석**. 대한미디어.
- 이학식(2008). **SPSS 14.0 매뉴얼**. 학지사.
- 이형권, 송성섭(2011). 운동자기효능감과 여가제약이 운동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심리학회**, 22(3), 27-42.
- 이형권(2016). 조절분석과 조절된 매개분석 및 매개된 조절분석의 오해와 진실. **관광연구**, 31(3), 2130248.
- 전원재, 임수원(2018).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의 정책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74, 291-308.
- 조민구 (2015). **여가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여가활동 영향요인의 실증적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조옥연(2014). 대학생들의 스포츠가치관이 스포츠도박 인식 및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7(1), 651-660.
- 차재빈(2018). 국민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가정책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30(5), 209-223.
- 최성훈(2018). 울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스포츠관광인프라 분석. **여가학연구**, 16(1), 77-88.
- 최승훈(2017). 노인여가복지 평생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사회연구**, 2, 141-163.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4). **국의 문화여가정책 사례연구**. 한국관광문화연구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5). **2007 여가백서**. 문화관광부.
- 하경희 (2017). 국민여가활성화를 위한 웰니스여가 전문인력 양성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27(1), 17-33.
- 한수지, 전미자, 김미경(2015).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들의 여가활동공간 활용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7(2), 82-87.
- 한수정, 조용준 (2010). 여가활동 변화에 따른 여가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GRI 연구논총**,

- 12(1), 213-232.
- 하응용, 김예성(2018). 국내 및 일본 노인여가복지 시설 현황과 현장분석을 통한 노인여가시설 개선. *스포츠사이언스*, 36(1), 49-65.
- 허중욱(2014). 여가시설 이용자의 여가만족과 여가제약. *관광연구저널*, 28(12), 203-213.
- 황현석(2018). 여가인식과 활용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2), 575-584.
- 홍명기, 장현석(2018). 낮은 자기 통제력이 비행파해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학*, 12(2), 99-199.
- Beard, J. G. & Ragheb, M. G.(1980).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1), 20-33.
- Bolen, D. W. & Boyd, W.H.(1968). Gambling and the gamble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8, 617-630.
- Diener, E., Lucas, E., Oishi, S. & Suh, E.(2002). Looking up and looking down: Weighting good and bad information in life satisfaction judg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437-445.
- Griffin, J. & McKenna, K.(1998). Influences on leisure and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people, *Physical & Occupational Therapy in Geriatrics*, 15(4), 1-16.
- Hayes, A. F.(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Guilford Press.
- Higginson, J., Halliday, E., Ortiz-Nunez, A., Brown, R.& Barr, B. Impact of free access to leisure facilities and community outreach on inequalities in physical activity: a quasi-experimental study,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London, 72(3). 252-258.
- Kovacs, A.(2007). *The leisure personality: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leisure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i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Indiana, USA.
- Lloyd, K. M., Auld, C. J.(2002). The role of leisure in determining quality of life: Issues of content and measurement, *Social Indicators Research*, 57(1), 43-71.
- Massimini, F. & Carli, M.(1988). *The systematic assessment of flow in daily experience*. in M. Csikszentmihalyi(eds), *Optimal experience: Psychology studies of flow in consciousness*. 266-287.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modei, M. M. & Wearing, A. J.(1990). Need satisfaction and involvement in personal projects: Toward an integrative model of subjective well 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762-769.
- Spiegel, K., Tasali, E., Penev, P. & Van Cauter, E. (2004). Brief communication; sleep curtailment in healthy young men is associated with decreased leptin levels, elevated ghrelin levels, and increased hunger and appetite. *Ann Intern Med*, 141(11), 846-850.
- Tennur, Y. L.(2013). Life satisfaction, leisure satisfaction and perceived freedom of park recreation participants, *Social and Behavior Sciences*, 93, 1985-1993.
- Vong, T. N.(2005). Leisure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in Macao, China. *Leisure Studies*, 24(2), 195-2007.